

# 오늘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역사에서 일상으로

(13) 5·18 문화콘텐츠 현황 <하>

## 음악·영화로 부활한 오월 ...광주 넘어 세계에 '큰 울림'

### <목 차>

- 제1부 5·18진상규명, 마지막 기회
- 제2부 5·18폭력은 현재진행형
- 제3부 오월정신의 계승

'임을 위한 행진곡' '광주출정가' 윤이상 '광주여 영원히!' 작곡 조용필 '생명'·BTS 'Ma city' 등 다양한 음악으로 광주정신 기려

단편 '칸트씨의 발표회' 첫 시도 1996년 본격 상업영화 '꽃잎' 이후 '박하사탕' '화려한 휴가' '26년' ... '택시 운전사' 까지 5월 영화 줄이어



힌트페터 기자와 김사복씨의 5·18 이야기를 다룬 2017년 작 '택시운전사'.

1980년 5월, 저마다의 방식으로 계엄군에 맞섰던 시인, 연극인, 미술작가들을 비롯해 가요계와 영화계에서도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담은 작품들이 만들어져 대중에게 확산됐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광주,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으며 '화려한 휴가'와 '택시 운전사' 등은 스크린을 통해 관객에게 큰 울림을 안겨 주었다.

### 음악

1980년 5월 이후에는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의 뜻을 잇는다는 의미에서 일제 시대의 독립군가들이 다시 불리어지기도 하고 새로운 창작민요가 만들어 지기도 했으며, 대중가요의 익숙한 악곡만을 차용한 노래가사 바꿔 부르기가 유행하기도 했다.

5·18을 다룬 노래 중 가장 잘 알려진 곡은 '임을 위한 행진곡'이다. 1981년 가을, 광주의 일부 문화패들이 고(故) 윤상원 열사의 낱풀이를 위한 카세트 테이프를 제작하면서 주제곡으로 끼워 넣은 곡으로 전국에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대표적인 운동가요로 자리잡았다. 이후 '광주출정가', '오월가', '선봉에서서', '전진하는 오월' 등이 만들어졌다.

1981년 MBC 대학가요제 대상곡인 정오차의 '바윗돌'은 "광주에서 죽은 친구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만든 노래고 바윗돌은 친구의 묘비를 의미한다"는 한 신문의 인터뷰 기사 때문에 방송금지곡이었다.

1982년에 발표된 조용필의 노래인 '생명'도 광주 5·18 민주화 운동 희생자를 추모하는 곡으로 만들어졌지만 당시 검열로 인해서 가사가 원안과는 달라졌다.

1983년에 발표된 에밀레의 '그대 떠난 빈들에 서서'도 5·18과 6월 민주항쟁을 추모하는 곡이며, 김수철 1집 앨범에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추모하는 성격의 '뭇다 핀 꽃 한 송이'가 수록되었다. 1984년 발표된 '바위섬'은 가요 프로그램에서 2위를, 라디오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1995년에 발표된 블랙홀의 4집 앨범 'Made In Korea'의 수록곡 '마지막 일기'는 5·18 마지막 날인 5월 27일 도청을 지키다 희생된 고등학생의 사연



1996년 개봉한 장선우 감독의 영화 '꽃잎'.

을 들은 블랙홀의 리더 주상균이 그것을 모티브로 삼아 만든 곡이며, 힙합 그룹 클라우드너의 '당신은 어디 있었나?'도 광주항쟁을 다뤘다.

직접 다루지는 않았지만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고향을 소재로 다룬 곡 'Ma city'에도 5·18을 암시하는 가사가 등장한다. 광주 출신 멤버 J-hope의 '날 불러면 시간은 7시 모여 집합, 모두 다 놀러라 062-518' 부분. 노래가 공개된 뒤 외국인 팬들은 062와 518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했고, 이에 국내의 한 방탄소년단 팬이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062, 518의 의미와 역사적 사실을 설명했다. 이를 통해 방탄소년단의 해외 팬들에게도 5·18이 알려지게 해 팬 중 일부는 광주 5·18 민주주의에 직접 조문을 오기도 했다.

클래식과 국악 등의 분야에서도 오월을 이야기한 작품들이 만들어졌다.

서독에서 활동하던 작곡가 윤이상은 1981년에 관현악 작품인 '광주여 영원히!'를 작곡했고, 그 해 5월 8일에 쾰른에서 서부독일 방송 교향악단이 초



이창동 감독의 1999년 개봉작 '박하사탕'.



1989년 제작된 다큐멘터리 영화 '오! 꿈의 나라'.

연했다. 하지만 이 곡은 제목부터 5·18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연주되지 못했다.

5·18이 본격적으로 재평가되기 시작한 1990년대부터는 유병은의 관현악을 위한 시나위 제5번 '오월의 노래', 김선철의 오페라 '무등 동동' 등이 만들어졌다. 2018년 5·18 38주년을 기념해 열린 광주시립교향악단의 연주회에서 김대성의 교성곡(칸타타) '임을 위한 행진곡의 주제에 의한 교성곡 '민주'가 초연되기도 했다.

### 영화

1980년 5월을 영화로 담아내려는 노력도 이어졌다.

영화가 광주를 본격적으로 담아내기 시작한 건 1987년. 김태영 감독이 다양한 상징으로 아픔을 형상화한 16mm 단편영화 '칸트씨의 발표회'가 첫 시도였다. 김 감독은 이듬해 장편영화 '황무지'를 제작, 연출하며 진압군 병사의 시선으로 광주를 이야

기했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황무지'의 필름과 비디오테이프를 압수했고, 김 감독은 이를 광주에서 상영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1989년에는 영화제작소 장산꽃매가 다큐멘터리 영화 '오! 꿈의 나라'를 제작했다. 영화는 광주항쟁 중 서울 동두천으로 피신을 간 대학생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광주학살과 미국의 역할에 중점을 뒀다. 고(故) 홍기선 감독이 제작자로 나섰고 '접속'의 장윤현 감독, '크리스마스에 눈이 내리면'의 장동홍 감독이 연출했다. 서울 대학로 예술극장 한마당에서 상영됐다. 89년 1월 개봉 당시 영화법 위반으로 고발당하는 등 군부독재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상영해 수많은 관객을 불러 모았다.

이정국 감독의 '부활의 노래'는 1993년 새빛영화 제작소에서 제작했다. 김영건·이경영·김수경 등이 출연했고 상영시간은 92분이다. 유신정권 시절, 사회 정의 실현과 민주화를 꿈꾸던 젊은이들의 항쟁을 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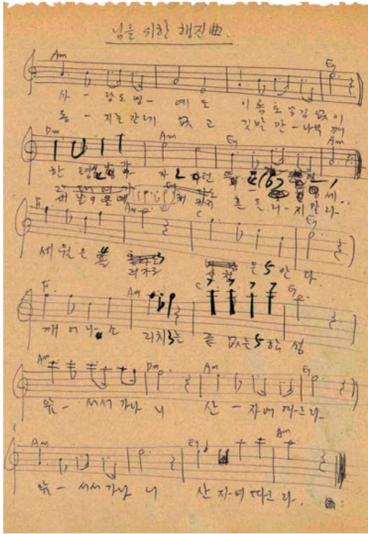
본격 상업영화로서 광주를 그린 영화는 1996년 장선우 감독의 '꽃잎'이다. 영화는 오빠와 엄마를 광주에서 잃은 소녀의 아픔과 이를 바라보는 공사장 인부 그리고 소녀의 오빠를 찾아 나선 친구들의 이야기로 광주를 말했다. 영화는 실제 항쟁의 '성지'였던 광주 금남로에서 무려 5000여 명의 사람들이 참여해 진압군의 첫 발표가 있었던 5월21일의 상황을 담았다.

뒤이어 이창동 감독이 1999년 설경구를 주연으로 내세워 '박하사탕'을 세상에 내놓았다. 진압군으로 투입됐던 한 남자가 순수했던 청춘을 보내고 점차 세상 속에서 일그러져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그렸다.

'화려한 휴가' (2007)는 5월18일부터 27일 전남 도청에서 최후의 항쟁을 벌인 시민군들의 이야기를 그렸으며, 강풀의 웹툰을 원작 삼아 제작된 '26년'은 2012년 개봉했다.

1980년 5월 광주를 취재했던 워싱턴 힌트페터 기자와 그를 서울에서 태우고 광주까지 간 한국인 택시기사 김사복이 겪은 사건들을 이야기한 '택시운전사'는 2017년 관객과 만났다.

/전재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임을 위한 행진곡' 악보



김원중의 '바위섬'

## 40년 아니라 400년의 기억공동체

### 임 의 진 목사·메이클 & 이매진 관장

5·18은 이 대지의 명예로운 정체성이다. 이는 나아가 도시 광주의 존재 가치가 되고 사명이 됐다. 5·18은 무슨 패배나 치욕의 역사가 아니다. 5·18은 민주와 자유의 분발이었으며, 국가폭력을 극복하는 '역설의 공헌'이었다.

기독교가 예수의 십자가 처형에만 머물지 않고, 그의 부활과 민중의 각성을 기념하듯이 5·18도 발표 명령자와 학살의 진실이 소상히 밝혀지면 명예의 회복은 물론이고 항구적인 민주 보장의 지렛대가 되어줄 것이다.

광주의 기억공동체는 세월호 앞에서도 동병상련을 나눴다. 안보란 국경을 지키는 안보라 여겼던 그간의 고정된 사고를 전복시킨 또 한 번의 계기가 된 사건이다.

안전한 삶, 국가가 지켜주는 건강한 일상을 안

보라 인식하게 된 순간이었다. 안보란의 변화는 오늘 코로나 19 대응에 큰 밑거름이 돼 주었다. 심지어는 5·18까지 덮고 폄하하려는 자들에 의해 촉발된 광주의 진실 규명 운동은 반민주의 무덤을 부수고 모욕죄 도입과 헌법 전문 명시에까지 이르리라 확신한다.

아직 검은 조기와 리본을 단상주가 있는 시절에는 노래와 나팔을 그치는 것도 예를 갖추어야 했다. 코로나 19로 40주년 기념행사들이 대거 취소되거나 보류됐다고 들었다. 머리로 짜낸 노래와 '낯춤'과 기획들은 차라리 없는 편이 낫기도 하다.

가슴으로 뭉쳐지고 어깨동무로 펼쳐진 거리의 합성이 아니라면 오히려 잘된 일인지도 모른다. 뉴노멀의 시대에 5·18은 '식지않은 정신의 연출'로 진행되는 새출발의 시연이길 바란다.

금남로와 망월동의 영령들조차 방역마스크를 끼고 서성이든 낯선 시대. 외형적으로는 고요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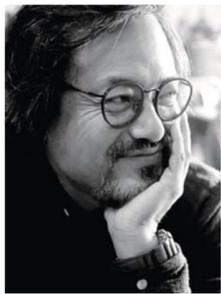
섬뜩한 오월이었지만, 군부독재의 잔재와 국정농단 의회권력에 철퇴를 내린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를 놓고 볼 때, 이만한 40주년 기념행사는 다시없겠다는 생각이 든다.

오월을 폄하하고 시민의 부아를 돌우던 극악한 입방정과 조력자들을 일부 날려버렸다. 남은 자들도 조만간 영령들 앞에 조야할 수 있도록 산자는 싸워나가야 하리라. 40년 아니라 400년, 진실을 위해서라면 치열하게 싸워나갈 광주공동체임을 다짐하고 결의하는 순간이다.

역사의 울돌묵을 그린 황지우 시인의 희곡 <오월의 신부>에는 광주 공동체가 피를 나눈 공동체임을 노래하고 있다.

"의사: 피가 부족해요! 피가! / 이영진: (의사에게 팔뚝을 내밀면서) 내 피를 몽땅 뽑아여그다너주소! 살릴 수만 있다면 다 뽑아요."

피는 서로가 서로에게 흘려 한 혈육이 되었다.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현재라는 시대에 아로새겨진 정신적 외상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조각난 과거를 다시 일깨워 구축한다고 하는, 고통을 수반하는 작업이다."

폭력이 지배하던 전장에서 가까스로 되찾은 일상. 후유의 침묵을 깨고 광주는 끝없이 조각난 과거를 일깨워 '산 역사'로 구축해왔다. 계속된 수혈처럼 그러한 결속이 없었다면, 피의 공급이 끊어졌다면 광주의 심장엔 이미 멈춰 섰을 것이다.

고통스러운 성찰과 회고는 5·18 기억공동체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침잠에 빠진 연민을 얘기할 만큼 정세가 한가롭지도 않았다. 죽기 살기의 싸움으로 버티고 지켜온 광주는 편안히 털조차 갖지 못하고 다시 출정하는 마음가짐이다.

상기를 금지하고 망각을 강요하는 치들과의 싸움에서 결국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 오월의 현장이었던 기억의 공간들을 소중하게 지켜내야 한다.

미래세대에 광주의 기억을 교육하고 전달하는 데 그만한 기제가 없다.

둘째, 기억을 공유하는 연대와 교류에 보다 더 과감한 활동과 응원을 다해야 하겠다. 폭력과 억압에 놓인 아시아와 세계 인민을 향하여 믿고 의지할 모범적 도시로 광주를 떠올릴 수 있도록 다층의 조성과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셋째, 문화예술계의 기억 재생, 상징화 활동을 적극 후견해야 한다. 기억 재생, 상징화를 통해서야 오월팔은 영속되고 확대되며 세대를 넘어서 교감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에 지역민과 외부인의 경계나 분리는 없어야 마땅하다. 지역색, 배타적인 빗장을 열고 과감히 함께 해갈 때 우리의 승리는 모두의 승리로 꽃필 것이다.